

보리심의 해석

인도어로 보디찌따비바라나,
티베트어로 장츄썸끼델바,
한국어로는 보리심의 해석(보리심석)이다.

금강살타께 귀의합니다.

『보리심석』 저술은 이 구절에서 시작되었다.

“실재하는 것은 없다.
오온, 원소, 감각, 감각 기관,
주체, 객체가 온전하게 사라진
법무아와 동일한
내 마음은 본래 발생한 적이 없는
공성 그 자체이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께서 대보리를 향해 마음을 일으킨 것처럼
나 또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지 못한 중생을 해탈할 수 있도록 하고,
숨 쉬지 못하는 이들을 숨 쉬게 하고,
완전한 열반에 들지 못한 이들을 완전한 열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지금부터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대보리를 향해 발심하겠다.

밀승 수행에 입문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보살은
세간의 도리에 따라 보리심을 일으키고,
궁극적 진리인 승의 보리심을 일으켜야
수행의 힘이 생기니 그 본질을 설명하겠다.

1. 보리심의 진정한 주인인
존귀한 지금강 부처님께 정례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보리심을 설명하겠다.
2. 여러 부처님의 보리심은
‘나’와 ‘오온’을

개념적으로 착각하지 않으니
언제나 공성 그 자체로 본다.

3. 자비가 가득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
대자대비한 부처님께서
항상 이 보리심을 수행하셨다.
4. 외도들이 말하는 ‘자아’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지만
오온 그 어디에서도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
5. 오온은 존재하지만 항상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본질이 아니며
항상하는 것과 무상한 것은
의지처와 의존하는 것으로서 양립할 수 없다.
6.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행위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항상 존재할 수 있는가?
대상이 있어야 그 존재를
세상에서 논할 수 있지 않겠는가?
7. 항상한 것은
순차적으로도 동시적으로도
작동할 수 없으니
안팎으로 항상하는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8. 항상하는 사물인데 왜 의존하는가?
항상하는 것이 다른 사물에 의존하여
사물을 생산한다면
그것은 항상하는 것도 아니며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9. 의존하는 것은 항상하는 것이 아니니
사물은 매순간 생멸을 하는 것이다.
무상한 사물에
행위자가 없을 리 없다.
10. ‘나’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오온, 원소, 감각, 감각 기관은 물론
객체와 주체라는 관념마저
사라진다.

11.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일으킨 분께서
성문 제자들에게
색, 수, 상, 행, 식을
설명하셨다.
12. 부처님께서서는
보살들에게
오온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질인 색은 물거품과 같고
13. 감각인 수는 물방울과 같고
지각인 상은 신기루와 같고
반응(육구)인 행은 파초와 같고
마음인 식은 환영과 같다.
14. 땅, 물, 불, 바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사람의 형색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수, 상, 행, 식은 형상 없이
존재하는 것들이다.
15. 네 가지 원소로 이뤄진
눈과 시각 대상은
감각 기관(육근)과 감각(육경)이라 하며
객체와 주체라고도 한다.
16. 물질인 색의 입자 없이 감각 기관이 발생할 수 없고
감각 기관 없이 행위자도 있을 수 없다.
발생하도록 하는 것과 발생한 것들은
합리적인 발생이 될 수 없다.
17. 물질인 색의 입자가 감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니
색의 입자는 감각 기관을 벗어나 있다.
집합에 의해 감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집합체도 인정할 수 없다.

18. 원자에도 방향성이 있어
구분이 된다면
부분에 불과한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을
어찌 원자라 할 수 있겠는가?
19. 하나의 양상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니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각자에게 다를 수 있다.
20. 여인의 몸을 두고도
수행자와 욕정에 찬 자와 개에게는
시체로, 욕정의 대상으로, 먹이로
분별이 일어난다.
21. 대상이 동일하게 작용해야 한다면
꿈속에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과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꿈을 꿀 때와 꿈에서 깨어났을 때가
정작 차이가 없지 않는가!
22. 의식에서 객체와 주체가
무엇으로 보여지건
의식과 별개로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
23.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본질은 없다.
각각의 의식이 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24. 보통 사람의 오염된 마음이
환영, 신기루,
건달바의 마을 같은 것을 보듯이
물질인 색을 보는 것이다.
25. '나라는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오온과 원소를 설명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집착하기도 하지만
큰 선연이 있는 이들은 이마저 끊기도 한다.

26. 의식만을 말하는 이들에게는
 마음은 다양한 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의식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27. 모든 것이 마음의 현상일 뿐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두려움을 끊기 위함이지
 궁극적 진리는 아니다.
28. 분별하는 허망한 성품(변계소집성),
 서로 의지해서 발생한 성품(의타기성),
 존재의 실상인 원만하고 참된 성품(원성실성)은
 하나의 공성을 마음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29. 부처님께서서는
 대승의 법을 따르는 이들에게
 만물은 자성이 없으며
 마음도 무시이래로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30. 요가 수행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니,
 마음을 초월한 청정한 마음이
 바르게 아는 지혜의 영역이다.
31.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어디에 있는가?
32. 존재하는 그대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 그대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의식은 주체가 없는 성품이기에
 의식에 다른 근본이 있는 것도 아니다.
33. 쇠붙이에 자석을 대면
 재빨리 달라붙는다.
 쇠붙이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 데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34. 이와 같이 근본 의식은
실재하지 않는데도
실재하는 것처럼 오가며
윤회하게 한다.
35. 바다와 나무에
마음은 없으나 움직임이 있듯이
근본 의식은
몸에 의지해서 움직인다.
36. 육신이 없으면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할 때,
이 사실을 아는 그 앎은
무엇인지 말해 보라.
37. 아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그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8. 지혜로운 이는 언제나
스스로 확신을 얻고
다른 사람도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오류 없는 법에 제대로 입문한다.
39. 마음인 식은 인식할 수 있는 대상만 안다.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식은 없다.
인지 대상과 인지 주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40. 마음인 식은 이름에 지나지 않으니
이름 이외에는 그 무엇도 없다.
이름 뿐이라고 인식하나
이름에도 자성은 없다.
41. 모든 승리자께서는
안과 밖은 물론 안팎 모두에서
마음을 찾지 못하셨으니
마음인 식은 환영일 뿐이다.

- 42.색상과 모양,
 객체와 주체,
 남성과 여성,
 중성에도 식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 43.요약하면 여러 부처님은
 식을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자성이 없는 자성을
 보았을 뿐이다.
- 44.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고
 개념이 없는 것은 공이다.
 개념이 있는 것에
 어떻게 공이 있을 수 있는가?
- 45.개념의 대상과 개념의 주체, 그리고 마음인 식을
 여래들께서 보지 못하셨으니
 개념의 대상과 개념의 주체가 있는 곳에
 보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46.허공과 보리심과 보리는
 성품도 없고, 생긴 적도 없고
 존재한 적도 없기에
 언어를 초월해 불이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 47.보리의 정수에 머무시는
 위대한 부처님과
 자비로운 보살님은
 공이 허공과 같음을 항시 아신다.
- 48.그러므로 만법의 토대이자
 평온하며 환영과 같고
 윤회의 뿌리마저 제거하는
 이 공성을 항상 명상하라.
- 49.발생이 없는 것이 공성이며
 무야가 공성이다.
 낮은 진리를 명상하는 것은
 공성을 명상하는 것이 아니다.

50. 선과 불선의 개념이
 끊어진 것을
 공성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외는 공성이라 하지 않는다.
51. 인식하는 대상 없이 마음에 머무는 것이
 허공의 성품이다.
 여러 부처님께서서는 공성을 명상하는 것이
 허공을 명상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52. 공의 사자후는
 세상의 모든 제창자들을 두렵게 만든다.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 어느 곳이든 공성이 있다.
53. 마음인 식은 매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니
 영원할 수 없다.
 식이 무상한데
 공성과 어찌 모순이 될 수 있겠는가!
54. 요약하면 부처님께서서는
 마음인 식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
55. 무시이래로 마음인 식의 자성은
 존재한 적이 없다.
 사물이 자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무자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56. 그렇게 말한다면 마음인 식은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자성을 부정하는 것이
 존재하는 성품이 될 수 없다.
57. 황사탕의 달콤한 성질과
 불의 뜨거운 성질처럼
 모든 법의 자성은
 공하다.

- 58.자성이 공성이라
 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존재가 불변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 59.무명으로 시작해 늙고 죽는
 십이연기에 의존해
 발생하는 모든 작용을
 나는 꿈으로 보고, 환영으로 본다.
- 60.십이연기의 바퀴는
 윤회하고
 여기를 벗어난
 중생의 업보는 없다.
- 61.거울에서
 얼굴을 보는 것은
 얼굴이 거울로 옮겨 갔기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얼굴이 없다면 거울에 비친 상도 없다.
- 62.이와 같이 온에 의식이 깃든 것이다.
 지혜로운 이는
 윤회도 전이도 없음을
 언제나 알아야 한다.
- 63.요약하면 공한 존재(법)에서
 존재(법)은 공하게 생긴다.
 행위자, 업, 인과, 사용자는
 세상의 관습일 뿐이라고 승리자께서 말씀하셨다.
- 64.북소리와 짝은
 조건이 모여 생긴다.
 이렇듯 외부 조건에 의존해 생긴 것은
 모두 꿈과 같고, 환영과 같다.
- 65.모든 존재가 원인이 있어 생기는
 순리를 결코 거스르지 않는다.
 하지만 인이 그 자체로써는 공하기에
 원인만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는다.

66. 모든 존재(만법)은 스스로 발생하지 않으니
공성이다.
요약하면 오온에서 비롯된
모든 법(존재)이다.
67. 궁극적 진리를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고
세속적 관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나
세속적 관습과 별개로
궁극적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68. 세속적인 관습을 공성이라 한다면
공성만이 세속적인 관습이 된다.
'결과'와 '무상'처럼
둘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생기지 않는다.
69. 세속적 관습은 번뇌와 업에서 생기고
업은 마음인 식에서 생긴다.
마음은 훈습이 쌓인 것이라
훈습에서 벗어나면 평안하다.
70. 평안한 마음은 평온한 마음이니
평온한 마음은 혼미해지지 않는다.
혼미하지 않으니 궁극의 진리를 깨닫고
궁극의 진리를 깨달으니 해탈에 이른다.
71. 진여와 궁극
무상과 승의
최상의 보리심
이것을 공성이라 한다.
72. 공성을 모르는 자는
해탈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욕도 윤회를 한다.
73. 수행자가 공성을
명상한다면
타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 74.과거 자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로서 도움을 베푼
중생들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 한다.
- 75.윤희의 감옥에 갇힌 중생은
번뇌의 불에 시달리고 있다.
내가 과거에 고통을 주었으니
지금은 안락을 전해야 한다.
- 76.편안한 삶(선취)와 괴로운 삶(악취)
원하는 행복과 원하지 않는 고통은
중생을 도왔거나 해쳤던
결과에서 비롯된다.
- 77.중생이 있어야
위없는 부처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신과 인간의 번영은 물론
범천, 제석천, 대자재천,
- 78.세상을 다스리는 이 모두
중생을 도우면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이 없는데
왜 놀라는가?
- 79.지옥, 아귀, 축생계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다른 중생을 해코지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 80.허기와 갈증, 구타와 난자 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도 없는 것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 것은
중생을 해친 과보이다.
- 81.부처와 보살,
편안한 삶(선취)와 괴로운 삶(악취),
모든 중생의 이숙과 역시
두 가지 본질이 있다는 것을 알라.

82. 중생들을 진심으로 보살피고
 자신의 몸처럼 보호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마치 독처럼 여겨 애써 잘라야 한다.
83. 성문들은 집착을 멀리하여
 작은 보리를 얻었고
 부처님은 일체중생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큰 보리를 얻으셨다.
84. 중생을 도운 과보와
 중생을 돕지 않은 과보를 깊이 헤아렸다면
 단 한 순간도
 자기 이익에 매달리지는 못할 것이다.
85. 자비로써 튼튼하게 뿌리내린
 보리심에 싹이 피면
 오로지 타인을 위하는 보리의 결실이 맺히니
 보살은 이를 수행한다.
86. 수행으로 견고해진 보살은
 타인의 고통에 놀라
 선정의 안락을 포기하고
 무간지옥으로 향한다.
87. 이는 경이롭고 찬탄할 일이며
 법의 위대한 이치이다.
 보살이 자신의 육신과 재물을
 보시하는 것은 결코 경이로운 일이 아니다.
88.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
 업과 인과에 순응하는 보살은
 경이로운 존재 가운데 가장 경이로운 존재이며
 찬탄할 존재 가운데 가장 찬탄할 존재이다.
89.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보살은
 비록 윤회의 늪에 태어나도
 윤회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니
 연꽃 잎과 같다.

- 90.보현보살은 물론 모든 보살은
공성이라는 지혜의 불로
번뇌의 장작을 태웠지만
자비심에 젖어 있다.
- 91.자비의 힘에 이끌린 보살들은
도솔천에서 떠나 모태에 태어나서 최고의 삶을 누리다가
세속을 떠나 수행하여
대보리를 얻어 모든 마군을 무찔렀다.
- 92.법륜을 굴리고
모든 천신 가운데 머물며
고통을 넘어선
열반에 이르렀다.
- 93.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범천, 제석천, 비슈누,
대자재천과 같은 모습으로 나투어
자비의 춤을 추신다.
- 94.윤회의 길에서 낙담한 이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두 가지 대승의 지혜를 말씀하셨지만
궁극의 진리는 아니다.
- 95.성문은
부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삼매에 취해
지혜의 몸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 96.부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사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일으켜
복덕을 쌓고 지혜를 쌓아
보리를 얻는다.
- 97.마음의 묶은 업으로 오랜 두 가지 습관이
형성되니 이를 혼습의 씨앗이라 한다.
두 가지 씨앗에서
윤회의 싹이 튼다.

- 98.세상의 보호자인 부처님께서서는
 중생의 근기와 성향에 맞추어 설명하셨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방편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것이다.
- 99.어떤 이에게는 심원과 광대를 분리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심원과 광대를 하나로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이 둘을 달리 말씀하셨지만
 공성과 비이원적 관점에서선 다르지 않다.
- 100.다라니, 보살지,
 부처의 바라밀다는
 보리심의 일부이며
 이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 101.몸과 말과 마음까지
 중생을 위해서만 쓰니
 논쟁으로만 공성을 운운하는 자들이
 허무한 것이라고 우기지 못한다.
- 102.위대한 이는
 윤회에도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들께서는
 무주처열반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 103.자비의 유일한 맛은 공덕이고
 공성의 맛은 수승이니
 자신과 타인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자비와 공성을 마시는 이, 바로 보살이다.
- 104.보살은 부처의 법을 위해
 이 세상에 안내자로 머무르니
 만물이 예경하고
 삼계가 향시 공양한다.
- 105.대승법 가운데 보리심이
 가장 수승하니
 애써 깊이 집중해
 보리심을 일으키라.

106. 자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다른 방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보리심 이외에 다른 방편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107.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생기는 복에
 형체가 있다면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이다.
108. 어떤 이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복덕은
 부처조차 헤아릴 수 없다.
109. 번뇌가 사라진 보배로운 마음은
 유일한 최고의 보물
 번뇌라는 악마와 도둑조차
 해치거나 빼앗을 수 없다.
110. 윤회계에서도 불보살의 기도가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마음은 보리심에
 집중해야 한다.
111. 놀랍겠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노력해 보라.
 그렇다면 보현보살의 행원을
 스스로 깨칠 것이다.
112. 승리자들께서 예찬한 보리심을 찬탄하여 얻은
 이 비할 데 없는 복덕으로
 윤회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께서 보여 주신 그 길로 나도 나아가리!

『보리심석』은 위대한 선지식이자 성자인 나가르주나 스님께서 저술했다. 인도 학자인 구나까라와 인도 번역가인 랍시 세넬이 처음 인도어로 번역하고 교정하였으며 이후 인도 학자인 까나까바르마와 티베트 번역가인 빠잡 니마닥이 수정했다. IBD에서 수학한 한국인 양지애가 한국어로 옮겼다.